	<b>인도네시아(자카르타) 해외사무소</b> <b>해외동향보고서</b>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하원정 소장
		일시	2024.2.12.

## CEPA Insight

- 경제대국 인도네시아 16위 진입 1조4천억달러 규모... 한국은 13위
- 2024년 선거운동...돈버는 업종은
- 한국-인도네시아 하늘길, 더 넓어진다

### ■ 경제대국 인도네시아 16위 진입 1조4천억달러 규모... 한국은 13위

(출처: 한인포스트, 2024.01.23)

- 국제통화기금(IMF)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큰 20개국 중 하나다.
- 이는 IMF 세계 경제 전망 데이터베이스 2023년 10월호에 기록되어 있다. IMF는 국내총생산(GDP)의 예상 가치를 기준으로 국가 경제를 측정한다. 2023년에 인도네시아의 GDP 가치가 1조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.
- 이 수치는 전 세계 GDP의 1.4%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는 세계 16위를 차지하고 있다.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3천억 달러 차이인 1조 7천억 달러로 13위를 기록하고 있다.



<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큰 20개국 중 하나다>

(출처: 한인포스트)

### ■ 2024년 선거운동...돈버는 업종은

(출처: 한인포스트, 2024.01.22)


- 2024년 인도네시아 총대선을 향한 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정치적 열의를 불러일으키고, 경제금융개발원은 이로 인해 여러 산업과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. 이를 통해 선거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업종을 5개로 꼽았다
- **식품 및 음료 산업:** 음식과 음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, 이는 요리 업계 종사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.

- **숙박 및 호텔 산업:** 후보자들의 지역별 선거운동으로 숙박 및 호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.
- **소매 또는 소매업:** 선거운동팀이 필요로 하는 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. 선거 운동 관련 용품에 주목한다.
- **운송 및 창고 서비스:** 이동성이 강조되는 선거운동으로 운송업 및 창고 서비스 산업이 활기를 띈다.
- **섬유 및 섬유 제품(TPT) 산업:** 선거운동 용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매출이 증가한다.
- 다른 부문에서도 선거운동의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. 인쇄 및 매체 산업, 제조업, 담배 산업, 통신 서비스, 기업 서비스, 디지털 산업 모두 선거와 관련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. 경제개혁센터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디지털 미디어에 더 의존하고 있어 디지털 산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.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긍정적 영향이 2024년 1분기까지만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대선 이 2월 14일에 1차로만 진행된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, 6월의 2차 결선 투표까지 이어진다면 경제적 영향은 2024년 2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.

## ■ 한국-인도네시아 하늘길, 더 넓어진다

“양국 6개 지방공항 간 직항 자유화, 한국 지방-자카르타·발리 각 주 7회 신설”

(출처: KBC, 2024.02.02)



국토교통부

보도자료

평화로운 동아시아의  
새로운 중심에 나서

보도시점 : 2024. 2. 2.(금) 08:00 이후(2. 2.(금) 석간) / 배포 : 2024. 2. 1.(목)

### 한국-인도네시아 하늘길, 더 넓어진다

- 양국 6개 지방공항 간 직항 자유화, 한국 지방-자카르타·발리 각 주 7회 신설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1월 31일부터 양일간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열린 한-인도네시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국제선 운항횟수를 대폭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.
- \* <수석대표> 한국심지영 국제항공과장, 민니뿌두 예카 까히와디(Putu Eka Cahyadi) 항공운송과장
-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유일한 직항 자유화 미체결 국가(마닐라 제외)로, '12년도에 주23회로 증대된 운항횟수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으나,
- 이번 회담의 결과로 양국 6개 지방공항 간 자유화되고, 한국 지방공항-자카르타·발리 간 각 주 7회 등 운항횟수가 총 주 28회로 증대된다.

<양국 6개 지방공항 간 자유화>

한국 6개 지방공항	인도네시아 6개 지방공항
부산, 대구, 청주, 제주, 무안, 양양	바탐, 마나도, 록록, 족자카르타, 발리파판, 케르타자티

<양국간 신설된 국제선 직항 노선 세부내용>

신설 노선	운항횟수
한국 지방공항(인천공항 제외)-자카르타	주 7회
한국 지방공항(인천공항 제외)-발리	주 7회
인천-바탐	주 7회
인천-마나도	주 7회

- 그간 한국 지방공항-인도네시아 간 직항 노선이 없어, 인천공항에서만 출발해야 했던 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.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또한, 성수기 동안 항공권 구매가 어려울 만큼 인기가 많은 발리 노선은 양국 지정항공사간 공동운항(Code-share)을 통해 무제한 운항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.

<한국-인도네시아 하늘길, 더 넓어진다>

(출처: 국토교통부)

- 앞으로는 부산, 대구, 청주, 제주, 무안, 양양 등 6개의 지역 공항에서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발리로 갈 수 있게 된다.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열린 한-인도네시아 간 항공 회담에서 양국 간 국제선 운항 횟수를 대폭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.
- 인도네시아는 아세안(ASEAN) 10개국 중 유일하게 직항 자유화에 동의하지 않은 나라로, 2012년에 증가된 주간 23회의 운항 횟수가 현재까지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. 그러나, 이번 회담 결과로 양국 6개의 지역 공항이 개방되며, 한국의 지역 공항과 자카르타·발리 간 운항 횟수가 주간 7회씩 증가하여 주간 28회로 늘어날 예정이다.

## ■ 시사점

-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, 이는 도내 기업들에게 인도네시아 시장으로의 더 큰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. 더욱이 선거 기간에는 어떤 산업이 더 유망한지를 분석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도내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. 한편, 이제 인천 공항뿐만 아니라 6개의 지역 공항에서도 인도네시아로 가는 것이 가능해져서 인도네시아 현장 방문을 통한 현지 시장을 경험 또는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기가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변화 될 전망이다.